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719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5월 30일 (음력 4월 26일) 목요일

전남 지역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 '비상'

전남 지역 연근해 수산자원 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한 어업발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29일 전남도의 2019년도 수산자원관리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15만6000t을 기록했다.

지난 1990년에는 29만7000t, 2000년 18만, 2010년 17만 등 해를 거듭할수록 생산량이 감소했으며 2015년에는 13만4000t으로 최저점을 찍었다.

지난해 다시 15만여 t으로 다시 회복했으나 1990년과 비교할 경우 47.7%가 감소했다.

전국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줄어 1990년 전국 생산량(154만2000t)의 20%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전국 생산량(101만2000t)의 13%에 그쳤다.

주요 어종별 자원감소 실태를 살펴보면

불법어업·남획·어장환경 악화 등 원인 꼽혀

전남도, 17만 회복 목표 3개 분야 10개 과제 추진

젓새우와 참조기, 참문어, 멸치, 민어 등의 자원감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젓새우는 지난 2010년 1만5860t의 어획량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1만664t으로 8년만에 30%(5196t)나 감소했다.

참조기는 2010년 2만534t에서 지난해 1만3715t으로 33%(6819t) 감소했으며, 참문어는 2010년 4871t에서 지난해 3224t으로 34%(1647t) 감소했다. 또 멸치는 같은 기간 30%(1만3027t) 줄었고, 민어도 30%(666t)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어업과 남획, 어장환경 악화 등의 원인으로 전국적으로 어획량이 감소를 했지만 전남 지역의 감소 폭이 더욱 커 심각성을 더한다.

1990년과 비교해 지난해 전국 어업 생산량은 34.4% 감소한 데 비해 같은 기간 전남은 47.7% 감소해 13.3%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연근해어업 생산량 17만 회복을 목표로 3개 분야 10개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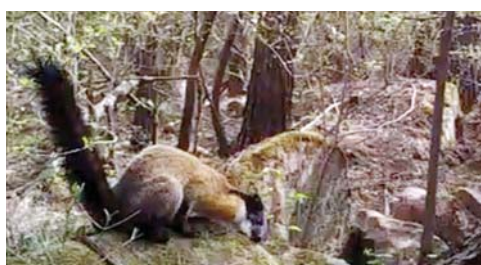
총어획량허용량제도(TAC) 중심의 자원관리시스템을 혁신하고 자원관리형 어업구조·지원체계 전환, 고질적 불법어업 근절·어란포기 보호 등 어업관리를 강화한다.



발미 제공?

국회 정보위원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28일 서울 국가정보원장과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의 민간 회동 논란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만남과 뭐가 다른가?'라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라디오 인터넷에서 "10년 일꾼 국회 정보위를 소집할 시간이다"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정원은 그렇게 함부로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노이회담 때제가 국정원에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더니 국정원은 아무나 전화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고 했다. 심지어 정보위원장이 자에게도 국정원의 번호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5번이나 요청했는데 안 준다 했다. 이런 정도 국정원장의 위태로움도 지적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자료사진=뉴시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무인센서카메라를 통해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노랑목도리담비의 서식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날 16일 무등산에서 발견된 노랑목도리담비.

멸종위기종 노랑목도리담비 무등산 일대에서 잇따라 발견

멸종위기종인 노랑목도리담비가 무등산 일대에서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29일 생태계 모니터링용 무인센서카메라를 통해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노랑목도리담비의 공인 내 서식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랑목도리담비는 유라시아 대륙에 분포하며 한반도에는 노랑목도리담비·검은담비 2종이 서식하고 있다.

노랑목도리담비는 몸길이 33~60cm, 몸무게 2~3kg로 몸집은 작지만, 표범·호랑이가 멸종된 한반도 생태계에서 최상위포식자 지위를 갖는다.

목 이랫부분이 선명한 노란색 털로 덮여 있으며, 머리·양털이·다리·꼬리 등지가 진한 검은색을 띄고 있고 윤기가 흐르는 것이 특징이다.

전남 이어 광주도 학교비정규직 천막농성 돌입

광주교육청 "교육부-17개 교육청-노조 3자 합의 우선"



전남에 이어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 종사자들도 29일 차별 철폐와 성실 교섭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은 전남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간 전남 학교비정규직 연대 농성 장면.

전남에 이어 광주지역 학교비정규직 종사자들도 차별 철폐와 성실교섭을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또 출·퇴근 선진전과 7월 총파업도 예고했다.

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9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차별없는 교육 현장을 만들겠다"던 대통령과 교육감들의 약속이 아직까지 실현

되지 못한 채 시간갈기시 불성실 교섭으로 성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단체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는 학교비정규직노조 광주지부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 전국여성노조 광주전남지부가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비정규직 종합백화점이라 불릴

만큼 수많은 비정규직이 교육에 꼭 필요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임금 차별은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로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교해 근속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비, 상여금 등의 수당도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두 달 간 6차례 실무협의, 2차례 간사협의를 했지만 교육부·교육청은 더 무늬없는 전제조건을 내걸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교섭권 침해, 교섭 회피,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비정규직연대회의는 7월초까지 단체교섭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교섭 회피나 지연은 결코 아니고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 3자 합의가 이뤄지면 시·역 단위에서도 원활한 교섭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광주에서는 현재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실무사, 교무행정사, 돌봄전담사, 전문상담사 등 28개 직종에 3000여명이 학교비정규직노조에 가입돼 있다. 공무원, 여성노조 소속까지 합하면 50여개 직종에 4000여명에 이른다.

조인호 기자



이혜훈



박지원



문재인

한빛원전 1호기 정지 관련 영광 지역주민들께 드리는 사과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이번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사건으로 인하여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머리 숙여사과드립니다.

최근 한빛원전과 관련한 CIP 문제, 화재 발생 및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사건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우려의 시각을 갖고계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전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수원 임직원 모두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송구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한빛원전 1호기 사건은 준비를 마치고 재가동을 위한 성능시험중 부적절한 제어봉 인출 및 정비원의 제어봉 조작 그리고 운영기술지침서에 대한 사전 인지 부족 등 중요 설비를 담당하는 한수원의 미흡한 대응으로 발생했으며, 현재 진행중인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또한 원안위의 명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및 이에따른 발전소 인력의 역량 확보, 설비운영 지침 및 절차개정, 성능시험시 모니터링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한수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주민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이행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한수원 임직원 모두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철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전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지역사회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지역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이번 사건으로 원전의 안전 운영에 대해 많은 심려와 불안감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한수원 임직원 모두는 각자의 위치에서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고 초심으로 돌아가 주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5월 27일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및 임직원 일동